

# ‘5년간 1000억’ 글로벌대학 사업 올해 10곳 선정... RISE 연계 강화

교육부-글로벌대학위원회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 확정·발표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자격 한정  
선정 대학 간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오는 9월, 본지정 결과 발표 예정

5년에 걸쳐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신규 지정이 올해 마무리 된다. 올해 10곳을 추가 선정하면 총 30개 규모로 글로벌 대학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글로벌대학을 2025년 5개 내외, 2026년 5개 내외 지정하려 했으나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글로벌대학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올해 10개 이내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글로벌대학 프로젝트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라이즈 생태계에서 글로벌대학의 혁신 선도 역할을 고려해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확고히 견지하되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 자격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국·공·사립 전체 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으로 한정됐다. 단, 대학 전체 정원 중 수도권 소재 캠퍼스의 정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선정 대학 간 지역 균형은 별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대학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당초 사업 첫해는 대학 한 곳당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지정 규모에 따라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됐으나 본지정 평가에 미지정된 대학은 혁신 방향을 유지·보완하는 경우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타 대학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혁신 방향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내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지정 대학과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지정 평가는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대학 내·외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벌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대학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이 창출됐고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1기·2기 글로벌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공유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더욱 고도화된 혁신모델들을 적극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대학은 지자체와 산업체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들과 밀접히 연계해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글로벌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2025년 글로벌대학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인하대, 게임분야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실감형 콘텐츠 게임기획 등 4개 분야  
약 10개월 동안 체계적 훈련 예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2025년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의 게임분야 국비지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3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진행하는 게임분야 국비지원 교육은 ▲실감형 콘텐츠 게임기획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실감형 콘텐츠 게임프로그램 개발 ▲실감형 콘텐츠 3D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양성VR·AR 3D 게임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등 총 4개 교육 분야로 구성돼있다.

이 중 기획, 개발, 모델링을 교육하는 3개 분야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애니메이터 양성 교육은 5월께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게임 분야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수강이 지원대 수강료가 전액 무료다. 높은 교육 수준과 훌륭한 취업 성과로 국비 교육을 통해 게임업계에 진출하려는 지방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게임 분야 국비 지원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약 10개월 동안 비전공자도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고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게임분야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포스터./인하대

적인 훈련을 받게 된다.

수료할 때까지 교재비, 교육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에셋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오후 10시까지 지습이 가능한 훈련 환경도 갖춰져 있다.

인하대 미래인재개발원 게임 분야 취업 교육은 한 해에 1개 기수의 훈련생만 선발한다. 오는 4월 25일 개강을 목표로 현재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산불피해 재난구호금 50억 편성

자원봉사자 160여명 긴급 투입

서울시가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을 증액해 산불피해 지역에 구호와 복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지역교류협력기금 증액 편성(안)이 오후 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먼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중 40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해 영남지역에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0억원은 향후 풍수해 등 재해·재난 대비 예비재원으로 확보한다.

구호금은 ▲전소 주택 처리 등 복구 위한 중장비 지원 ▲농기계 구입 ▲임시 조립주택 설치 등 산불 피해가 집중된 영남지역의 빠른 재건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구호금 외에도 4일과 5일 산불 피해지역에 현장에서 복구 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160여 명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실시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서 진행  
'찾아가는 시험서비스'도 시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5일 서울시 내 12개 고사장서 '2025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76명, 중졸 1016명, 고졸 3796명으로 총 5288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8명, 재소자는 50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 1곳에서 시행되며, 중졸은 석관중·대명중 등 2개교에서, 고졸은 신현중·연희중·잠신중·신복중·구암중·자양중 등 6개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검정고시에도 교육청은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시험에는 2명의 지원자가 각각 자택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재소자들을 위한 별도 고사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란 고사장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자를 위해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도 제2회 시험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모든 지원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오전 8시40분까지 고사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해당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합격여부는 오는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삼육대, 산불피해 재학생에 장학금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중)는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2025학년도 정규 등록 재학생 중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구성원이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전원에게 지원한다.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해당 주소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해중 총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삼육대는 재학생들이



삼육대학교 전경.

/삼육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자율주행부터 UAM까지 전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양시가 후원하며,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한다.

1995년 '서울모터쇼'로 시작된 이 전시는 2021년부터 '서울모빌리티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자동차 전시를 넘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이동수단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로 진화했다.

올해는 특히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사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며, 신차 시승과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VR 콘텐츠, 서울모빌리티패션워크, 디제잉 공연, 오케스트라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체험형

전시회로 펼쳐진다.

또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주관하는 '1단계 성과공유회'(4월 3~6일)에는 20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최신 자율주행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기술포럼과 논문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퓨처모빌리티어워드(Future Mobility Awards)'는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와 한국생성A[파운데이션(KGAF)]이 공동 개최하며, AI 기반 기술까지 포함해 미래 이동수단의 혁신을 조명하는 통합 시상식으로 관심을 모은다.

한편, GTX-A 노선 개통으로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며, 접근성은 대폭 개선됐다. 킨텍스 측은 제3전시장 공사로 인해 제1전시장 주차장이 용이 제한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